

사설

2006년 전기 졸업생에게 거는 기대

지난 2일 2006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과거 형식적인 의식에서 탈피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졸업의 영예를 얻은 1,252명 졸업생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도를 축하하는 실질적인 축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졸업식은 형식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예년에는 대강당에서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뉘어 거행되었지만, 이번에는 노천극장에서 한꺼번에 거행되었고, 예년에는 박사를 제외하면 졸업생 대표가 학위증을 수여받았던 반면, 이번에는 졸업생 전원이 단상에 올라가 총장과 부총장에게 개별적으로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렇듯 변화된 졸업식은 졸업생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395명, 석사 656명, 박사 203명의 새로운 동문이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 학교 동문은 학사 8,453명, 석사 17,762명, 박사 6,726명으로 늘었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명예박사 수여식이 동시에 거행되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이종문 압백스 회장, 널 파팔라도 메디텍 회장, 박병준 뷰로 베리타스 회장이 영예의 주인공이다. 이번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네 분의 명예동문들은 평생 독창적인 과학기술과 도전적 기업을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그 과실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정든 교정을 떠나가는 1,252명의 신규 동문들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한 인물들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동문들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학문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번에 교문을 나서는 1,252명의 신규 동문들 역시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 학계든, 산업계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국가와 인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1,252명의 졸업생들은 몸은 비록 교정을 떠나더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의 동문으로서 모교의 명예를 지키고, 발전을 돕기 위해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 1,252명의 신규 동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단지 남보다 낫다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 개개인의 명예를 빛내는 것이야말로 동문이 모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다.

우리 학교 교육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동문 모두는 국가와 모교에 대해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명예박사를 받은 네 분처럼 자신의 창의력과 각고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를 언젠가 사회와 나누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1,252명의 동문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V3 백신 2007년 판 업데이트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V3 백신이 2007년 판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이는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개인정보보호기능이 통합된 제품으로, 설치 전에 타사백신을 우선 삭제해 줘야 한다.

정보통신팀의 김진성 씨는 "매년 라이선스비를 주고 계약을 갱신하는데, 조금 더 나은 지원을 위해 2007년 버전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러스체이서에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사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은 홈페이지(circnts.kaist.a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시은 기자

leesieun723@kaist.ac.kr

기성회비 4.7%인상 확정 07학번 부터는 150만원 이상 납부

2007년도 기성회비가 전년도 대비 4.7% 인상된다. 아울러 이전에 다르게 책정되었던 02학번 이전 재학생과 03학번 이후 재학생의 기성회비도 같게 책정된다. 이로서 02학번 이전 재학생들은 14.7%의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07학번 이후 입학생은 150만원 이상 자유 납부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납부한다.

양지원 대외부총장 겸 기획처장은 "현재 230억이 투자되는 스포츠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가설계가 진행중이다. 이와 같이 더 나은 학내 환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준비 중이고 이러한 사업의 일부 예산 확보에 기성회비가 사용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완철 학생처장은

"학내 여러 개선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제1목표로 삼아 고려한 인상을 중 최하 인상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준우 학부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장은 "기성회비 책정에 학생의 의견 전달 과정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학교 측과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울러 기성회비 회계자료를 늦게 인수인계받아 논의하는데 기초자료로 전혀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인상률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 학우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프레젠테이션 강좌 개설 능력개발센터 개최, 대학원생 상대

능력개발센터가 대학원생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를 연다.

강좌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다. 한국 카네기연구소의 박영찬 소장이 강사로 출강한다. 실습은 학우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사진을 찍어 검토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수업일시에 따라 두 반으로 나뉜다. A반은 6일, 8일, 13일에 B반은 7일, 9일, 12일로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수업한다.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개강일에는 오후 1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장소는 창의학관 5층 501호이다. 리더십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leadership.kaist.a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봉수 부 센터장은 "대학원생은 실험실이나 학회, 나아가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많다. 프레젠테이션을 배우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좌는 대학원생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개설한 것이다"라고 개설 취지를 밝혔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실습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자기 능력은 강의로만 키울 수 없다.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이디현 기자

howies@kaist.ac.kr

동연, 미래홀에 비품 추가 설치

태울관 미래홀의 음향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양한솔 동아리연합회장은 "태울관 미래홀의 취약한 음향시설은 음악분과 동아리의 공연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재 예산이 많지 않아 모니터 스피커 하나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는 ara를 통해 학부매점 2층에 있는 다용도실의 비품 신청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양 동연회장은 "다용도실은 음악분과 동아리의 연습 등 동아리 활동에도 많이 사용된다. 다용도실에 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특별히 물품을 요구하는 학우는 없었지만, 차후 다용도실의 물품을 요구하는 학우가 있으면 그 타당성과 예산 정도를 고려해 비품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이번 새터는 '착한 새터' 학교 외부에서 진행, 주류 유입 금지 돼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학부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는 2007 새터에 '착한 새터'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이번 새터는 이전의 새터와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예년과 달리 교내가 아닌 충정북도 충주 수안보에서 진행된다. 새터에 참여하는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준비된 버스를 통해 수안보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이번 새터에는 주류 유입이 일체 금지된다. 김준우 새터기획단장은 "이전에 술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음을 고려해 새터 기획 초기부터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되는 새터인 만큼 더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새

터기획단장은 "이전보다 반별 자유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의 진행이 너무 빠박하고 반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 새터에서는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둘째날 오전에는 강사를 초청해 MBTI 검사와 그 결과를 통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승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예방교육팀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똑똑하게 술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강연도 준비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이후에 문화기술대학원의 류중희 교수의 강연도 이어진다. 이외에 마니또, 반별단합프로그램, 물링페이퍼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음악분과의 동아리 공연은 이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술동아리인 Mind Freak의 마술 공연도 더해져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김권호 기자

bloodyred@kaist.ac.kr

謹賀新年

밝은 새해를 맞이하여
希望과 幸運이 항상
함께 하시길 祈願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과학문화사
Kwahak Publishing Office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W8) 1층
전 화 : 042) 869-5095, 4940
042) 867-2323
팩 스 : 042) 867-2324
E-mail : yks@kaist.ac.kr